

정치의 발전과 정치학연구의 심화

정치학에서의 진보적 인식들과 그 영향 및 쟁점

고성국

고려대 강사·정치학

확장되는 연구영역

80년대는 가히 정치학 연구의 보고와도 같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 '서울의 봄', 광주민중항쟁과 12·12쿠데타, 5·17쿠데타가 엮어낸 역동적 정치변동도 그렇지만 85년 2·12총선, 87년 대통령선거, 88년 4·26총선, 91년의 지방선거가 보여준 정치드라마에 더하여, 6월민주항쟁, 7·8·9월 노동자대투쟁, 91년 5월투쟁 등 민족민주운동의 양·질적 발전과정 또한 정치학 연구에 더할 수 없는 자극을 주었다.

특히 87년 이래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의회·정당정치와 민족민주진영의 정치활동은 정권의 교체 및 그에 따른 지배방식의 변화 등과 맞물려 향후의 정치전개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정치학 정립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연구대상과 영역이 확장되면 연구의 내용과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80년대 사회과학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 정치학이 적지않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이와 같은 연구의 객관적 조건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뒤이어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역학 및 남·북한관계 변화도 정치학 연구영역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를 둘러싼 여러 이론적·현실적 논쟁들이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태전개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진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한·미, 한·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전망의 모색이라는 연구영역은 아직은 U.N가입문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사태전개를 채 따라가지 못하는 저급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연구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진보적 정치학의 연구동향

80년대 10년간 이루어진 정치학의 발전은 정치현실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추척하려는 연구자대중의 노력과 그것을 가능케한 최소한의 연구환경의 정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확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구성과가 확대·발전되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내·외적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었다.

첫번째 어려움은 기존 주류정치학과 제도권 학계의 높은 벽이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데올로기적 표출이 더욱 직접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학의 경우 기존 연구대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연구영역을 폭넓게 확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류정치학과와의 이론적·정치적 대립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기능주의와 행태주의 및 서구자본주의를 전형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론지향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하는 주류정치학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을 구사하면서 정치변동의 역동성을 포착하려는 새로운 연구경향이 취했던 태도는 기본적으로 문제제기적인 것이

었다. 그것은 한국과 같은 보수적 학문풍토에서 진보적 정치학연구가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자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광범위하게 전개된 진보적 정치학 연구는 정치경제학과 종속이론의 수용 단계를 거쳐 이제 우리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주체적으로 분석, 전망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여전히 많은 정치적·학문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 6권으로 총괄된 해방 8년사연구나 백산서당의 정치학 강좌 전 4권(「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 「한국정치사」 「한국정치론」 「북한정치론」)으로 정리된 한국정치연구의 성과는 80년대 정치학이 이루어 낸 성과의 하나로서 평가될 만하다.

둘째는 진보적 정치학 내에서도 방법론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비판을 넘어선 대안적 연구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역량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 예시한 두개의 작업도 방법론의 혼란, 구체분석의 부족 등의 많은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하게 개별연구자의 연구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최장집·김세균·손호철교수 등의 연구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정치학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정치와의 직접적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장집교수의 「한국현대정치구조와 변화」(가치)은 이 시기 정치학 연구의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비롯한

개별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진보적 정치학진영 전체의 역량강화로 여하히 확대시킬 것인가 이후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할 것이다.

셋째는 진보적 연구진영이 직면하고 있는 연구환경의 어려움이다. 기성학계의 높은 벽뿐만 아니라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진보적 정치학 연구진영은 그간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대중의 연구활동의 재생산을 뒷받침해 주는 물적 기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개별적 연구작업은 물론 연구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기본 요건인 집단작업의 객관적 근거조차 거의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 한국 정치연구회가 작업한 정치학강좌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를 그 성과 못지않게 잘 보여주었다.

아마도 이러한 열악한 연구환경은 단기간에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자대중의 분발과 정진 못지않게 출판계를 비롯한 각 부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관심이 필요하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진보적 학계 전체의 집단적 노력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격연구 위한 출발단계

앞에서도 간간히 언급한 바와 같이 진보적 정치학 연구영역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획된다. 세계정치와 동북아질서가 한반도와 맺고 있는 관계, 근·현대 100여년의 정치변동에 대한 정치사적 해명, 현대정치구조 및 정치변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전망, 북한정치에 대한 객관적 연구 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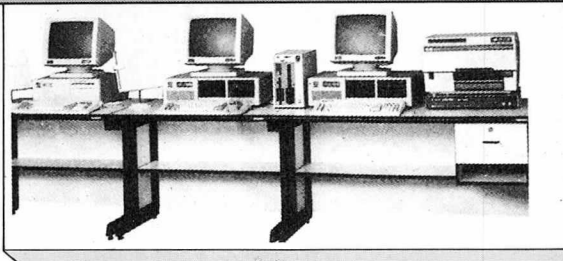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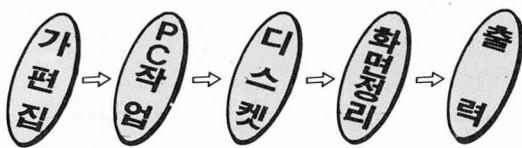
출판의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이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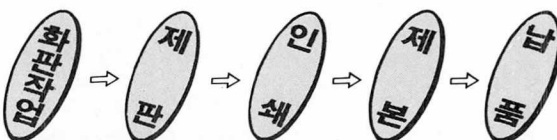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등과 서체, 굵기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카다록/박 스/학위논문/식순지/사보 및
월간지/각종 안내장/단행본 및 전집류/각종 홍보물제작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을 구사하면서

정치변동의 역동성을 포착하려는

새로운 연구경향이 취했던 태도는

기본적으로 문제제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과 같은 보수적

학문풍토에서 진보적 정치학연구가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지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역의 연구현황 및 각각의 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국제관계 영역에서 제일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무래도 연구방법론의 부재와 자료의 부족 및 그로 인한 연구수준의 절대적 저급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EC, 소련, 중국 등 개별국가들의 국제전략구도에 대한 일차적 이해가 충분치 못함으로 인해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변화에 대한 해석이나 전망은 사실상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반미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관계에 대한 몇권의 개론서(「한미관계사」(실천문학사), 「한미관계의 재인식」(두리출판사))가 출판된 것이 외에는 대부분의 책이 시사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분야 연구의 낙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사 영역에서는 그간 나름대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몇 권의 대중적 개설서(「알기쉬운 한국현대정치사」(공동체), 「한국정치사」(한국정치연구회) 등)을 제외하면 연구의 대부분은 아직 50년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4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연구서(「한국전쟁연구」(최장집 편, 태암) 「한국전쟁의 이해」(한국정치연구회 편, 역사비평사) 등)가 다수 발간됨으로써 정치사 연구는 이제 50년대로 연구시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작년 4·19 30주년 기념논문집으로 출간된 「한국사회 변혁운동과 4월혁명」(한길사)과 올해 출간된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태암) 등은 그 성격상 50년대와 60년대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정치사연구서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사연구에서 50년대와 60년대는 상대적으로 40년대나 70~80년대에 비해 자료의 축적이나 연구성과의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시기로서 이후의 정치사연구가 감당해야 될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한국현대정치 연구영역은 크게 이론과 현실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이론은 주로 사회구성체논쟁의 연장선에서 있는 상부구조론 및 국가이론 영역과 변혁론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진보적 정치학 연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작업했던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론을 둘러싼 제반 논쟁도 그렇지만, 5공화국과 6공화국 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쟁 및 그 연장선에서 있는 민주변혁의 전략적 경로와 관련된 제반 논의는 한국정치 연구가 도달한 연구수준을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다.(이 분야에서는 많은 논쟁적 작업들이 출간되었으나「현실과 과학」(새길)등에서 보이듯이 그 대부분은 정파적 이해에 긴박되어 있다. 학계의 연구성과로는 학술단체협의회 편 「198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풀빛, 1989)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현실분석은 국가의 작동메카니즘과 구체적인 정세전개과정 및 정국예측 등으로 구성되는데 결국 이는 정세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로 모아진다. 정세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이론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말 필자도 이수인, 정관용과 공저로 민주정치평론집인 「한국정치의 구조와 진로」(실천문학사)를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대안의 개발로 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일례로 지자체선거가 예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연구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방자치제와 한국사회 민주변혁」(민중사)만이 출간되었을 뿐이며, 여기서도 지자체에 대한 대안적 분석보다는 지자체의 원론적 의미와 대응이 주로 검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양상은 환경·공해·교통·주택 등 구체적 정책대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보적 정치학계는 전문역량과 실제적 행정경험을 연구로 수렴, 조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연구의 공백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연구소는 「동향과 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책대안 연구가 상당량 축적되면서 이들을 총괄하는

대안적 사회전망이 제시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북한정치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자료의 부족과 연구방법론의 부재로 짐작된다.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북한 연구의 당위적 명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정치연구회의 「북한정치론」에서도 보이듯이 아직까지도 당위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학적 분석은 사회주의 연구방법론을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적용시키는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근거로 해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출간된 대부분의 북한 관련서적, 예컨대 「북한사회의 재인식」(한울) 등은 북한연구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일종의 스케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조차도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글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진보적인 정치학연구는 이제 출발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집단적으로 작업해 온 그간의 연구는 본격적 연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연구대상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이며 이 각각의 연구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연구방법론의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의 성과가 양적으로 축적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학문적 계기를 목적의 식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만이 위의 모든 과제들은 발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

출판·편집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디자인 회사,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지닌 감성구조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출판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4-4 옹우빌딩302호

TEL : 268-2327~8, FAX : 268-2329

出版企劃

〈번역·집필〉
《全分野·全種別》

- 한·중출판정보학회
- 한·중번역저술학회
- 현대중국학술정보센터

代表 : 黃秉國

(前) 숙대교수·출판사 기획실장·중국어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 Apt. 10단지 31동 4호
전화 : 645-7052

출판기획



하얀 여백과 신선한 아이디어와의 만남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져드립니다.

표지디자인
단행본편집·제작대행
광고카피 및 디자인
사보기획·제작
기업체홍보물(카탈로그등)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재동 107-1 (안국전철역)

TEL : 765-9027·755-5558 FAX : 764-8238

